“웃음·감동 있는 템플스테이 여정, 드라마로 만나요”

‘4기 불교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⑤차준호 감독

‘불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풀어내
포스터·OST 제작·시사회도 계획
딱딱·어려운 불교 이미지 바꿔줄
인간미 넘치는 영상 심혈 기울여
“출가 장려 다큐도 기대해달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최근 10분 이내의 짧은 스토리로 구성된 영상들이 유튜브 등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스토리에 정보를 담고 감동과 메시지까지 전달하기에 최적 콘텐츠죠. 불교 철학이나 사상, 삶의 방식 등을 콘텐츠화해 자연스럽게 노출하면 불교도 더욱 대중들에게 친숙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불교 크리에이터 4기 차준호 감독의 웹드라마 ‘템플스테이(가제)’의 탄생은 넷플릭스의 한 인기 드라마에서 시작됐다. 차준호 감독은 ‘더 글로리’에서 청주 용화사가 배경으로 나온 모습을 보고 처음 웹드라마 ‘템플스테이’를 구상했다. 최근 들어 인기 영화나 예능 콘텐츠에 불교가 소재로 다수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차 감독은 때마침 불교 크리에이터 4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웹드라마 ‘템플스테이’는 여자 주인공 희진이 여름휴가를 맞아 떠난 사찰에서의 1박 2일 여정을 담았다. 새벽예불과 공양, 사찰 생활 등 평소 차 감독이 가졌던 ‘불교’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이야기로 풀어냈다. 8월 말, 남양주 봉선사에서 촬영을 마쳤고 현재 편집과 음악 작업에 한창이다. 드라마 종합편 1편과, 출연진 인터뷰와 제작 과정 등이 담긴 메이킹 필름 1편 등 총 2편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차 감독은 ‘템플스테이’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길 기대한다. 크리에이터로서 의무적으로 만든 작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유튜브와 포털사이트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마포에 위치한 한국영상자료원 상영관에서 시사회를 개최하고 포스터와 OST 제작, 음원 출시 등 체계적으로 마케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야말로 ‘찐’ 드라마 제작 방식 그대로다.


차준호 감독의 웹드라마 ‘템플스테이’ 장면 中.

차 감독은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콘텐츠 보급과 활용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불교계에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영화감독을 꿈꿨다는 차준호 감독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학부시절부터 다양한 영화제와 영상공모전에 응모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이력도 화려하다.

학생 때부터 홍보영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프로덕션 등을 거치며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별개로 개인 유튜브 채널인 ‘차씨네 픽쳐스’를 운영하며 짧은 인터뷰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기도 하다. 센스 있는 연출로 입소문이 나면서 다양한 기관에서 콘텐츠 제작과 관련 강의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30여 년 가까이 다양한 영상물을 만들어 왔지만 차 감독은 여전히 하고 싶은 작업들이 많다. 현재 장편영화를 준비 중으로, 시나리오 작업 마치고 현재 캐스팅 작업에 한창이다. 따뜻한 웃음과 감동의 눈물이 있는 휴먼코미디 영화를 만드는 것이 꿈이다.


작업실에서 편집작업에 한창인 차준호 감독.

차준호 감독의 차씨네 픽쳐스
https://www.youtube.com/channel/UCNyC8GWececlgt2yPHSvwHw

이번 ‘템플스테이’에도 웃음과 감동이 있는 인간미 넘치는 영상을 선보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차 감독은 “딱딱하고 어려운 불교 이미지를 바꿀 뿐 아니라 포교콘텐츠 활성화에도 이번 웹드라마 템플스테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교 관련 콘텐츠는 처음이기에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기대했다.

차 감독은 ‘출가’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불교크리에이터 4기로 함께 선발된 현밀 스님을 만나고 나서 “스님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차 감독은 “출가를 주제로 한 다큐가 출가 장려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라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가 다큐도 기대해 달라”며 웃었다.

정승윤 공불련 회장 “부처님 가르침으로 국민 행복 증진”

9월 9일, 조계사서 회장 취임식
“공불련 새로운 도약에 최선”
진우 스님 “사회 밝게 비추길”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제13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이하 공불련) 회장으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다. 공불련은 9월 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3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정승윤 회장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듬고 자신의 성불은 물론 나라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취임사에서 ‘발심(發心)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승윤 회장은 “발심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것이고, 저 또한 용기를 얻어 공불련 발전에 매진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윤 공불련 회장 취임법회가 9월 9일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그러면서 회장으로서 공무원 불자 조직의 재건과 활성화를 목표로 △불법 가르침 배우고 실천 △많은 공불련 회원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 전개 △행정기관 불자 조직 확대와 불자 공무원 수 늘리기 △부처님 가르침을 국민 위한 정책으로 반영 등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공불련 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불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정승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각가와 국민들을 위해 묵묵히 공무를 수행해온 공무원 불자들을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되새기며 동체대비의 대자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면서 공무원불자들에게 “발고여락(拔苦與樂)만이 불제자들 소명임을 바로 알아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적극적인 전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각계각층에서 정승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는 축사도 이어졌다. 이진복 대통령실불자회장은 “국회 정각회와 대통령실 불자회, 군불자 조직 등과 연대해 함께 신행활동 하자”면서 “불교를 넘어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함께 실천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공무원 불자들은 임란희 행정안전부 불자회원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으며 ‘나랏일을 즐겁게, 국민에게 기쁨을’이라는 공불련의 목표를 다시 되새기겠다”면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발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호를 내려달라”고 발원했다.

임은호 기자

“생명나눔 가치 널리 알릴게요”

생명나눔, 9월 12일 가수 진미령·임지민 홍보대사 위촉

가수 진미령과 임지민이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새로운 얼굴이 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은 9월 12일 서울 본부 회의실에서 가수 진미령과 임지민을 생명나눔 홍보대사로 위촉했다.〈사진〉

일면스님은 “오늘 홍보대사로 위촉된 두 분이 대중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방송과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생명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진미령 씨는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름만 홍보대사가 아닌 몸소 실천하는 활동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나눔의 의미를 전달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임지민 양도 “생명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중들에게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취업 걱정 마세요”…동국대, 취업박람회

9월 11일 개막식… 22일 까지
삼성전자 등 127개 회사 참여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동국대가 올해에도 대대적인 취업박람회인 ‘2023 Job & Career Festival’를 개최했다.〈사진〉

동국대(총장 윤재웅)은 9월 11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2023 Job & Career Festival’(이하 취업박람회)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삼성증권, 넥슨 등 한국 굴지의 기업 127곳이 참여하며 오프라인 박람회는 9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9월 22일까지 열린다.

개막식에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늘 개막하는 취업박람회는 ‘등록금 없는 대학, 취업 걱정 없는 대학’이라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에서 시작했다”면서 “입학 후 학비 걱정없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고, 졸업한 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진출할 수 있 대학이 우리가 그리는 동국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문스님의 말씀대로 장학과 취업은 최고의 수확이자 동국의 결실을 나누는 일”이라면서 “학교법인은 학생들이 오직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에 진출해 더욱 빛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식사에서 “올해는 작년 취업박람회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전교적인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번 취업박람회 기간 동안 주요 기업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동국대는 Job & Career Festival 기간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학생 선호 기업에 재직중인 동문 재직자와 함께 하는 ‘온라인 동문 취업·직무 멘토링 ’멘토링 클라쓰’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이 1대 1로 상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취업박람회’ △비대면 채용상담이 가능한 ‘Metaverse 취업박람회’ △학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 및 취업프로그램 ‘학과별 멘토링데이’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취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명사 초청 특강’ 등 5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편, 동국대는 앞으로 가을학기 시작과 함께 취업박람회를 학교 대표 플래그쉽 행사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중일 기자

동산반야회 ‘스스로 그래도’ 합창 공연

클리어마인드와 공동 주최
10월 6일 조계종 총무원서
향산 스님 창작곡 5곡 합창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사장 정은용)과 (사)클리어마인드절명상센터는 10월 6일 오후 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향산 스님 창작 깨달음의 노래 발표- 스스로 그대로 합창단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향산 스님의 창작곡 5곡이 발표된다. 향산 스님은 ‘스스로 그대로’ 절명상 수행을 하면서 떠오른 깨달음의 경구를 노래한 곡들을 창작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향산 스님은 △‘몸 마음 나 아님을…’ △‘몸 마음 나 아님을(아리랑)’ △‘속지맙시다’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맑고 밝고 향기롭게’ 등 창작곡 5곡을 선보이며, 이 곡들을 불교계 5개 연합합창단이 함께 부를 예정이다.

공연의 특별출연자로 소프라노 성악가로도 유명한 부산 화명선원 주지 정행 스님도 참가한다.

한편, 이번 공연은유튜브로 생중계되며, 공연실황은 녹화해 BBS불교방송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승가지도자 양성 위한 선불장 열린다

선불장아카데미, 10월 6~9일
스님 20명 선착순…무료 진행

한국불교 미래를 책임질 선백(禪伯) 양성을 위해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

선불장리더십아카데미(공동대표 마가·금강·월호·각산)가 10월 6~9일 안성 활인선원에서 ‘제2기 승가 선불장’을 개최한다. 승가 지도자를 양성을 위한 이번 선불장에서는 20명의 스님만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강의, 금강 스님의 참선습의, 월호 스님의 아바타·바라밀·아미타 명상 등이 준비돼 있다. 참선과 명상으로 대중포교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마가·금강·월호·각산 스님이 그간의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선불장 과정을 마친 스님들에게는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 30점도 주어진다.

재가자들을 위한 선불장 집중수행도 진행된다. ‘제2기 재가 선불장’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안성 활인선원에서 열린다. 선착순으로 40명을 모집한다. 070-4457-5448

김내영 기자

현대인 위한 수행·포교 어떻게 할까

한마음과학원, 승려연수 개최
6~8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서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9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서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를 주제로 승려연수과정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승려연수과정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소주제로 시대적 포교방안과 법회 운영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9월 6일에는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의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방안’ 강연과 박종래 서울대 교수의 ‘한마음과학’ 강연, 7일에는 황수경 동국대 교수의 ‘생활 속의 마음공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혜벽 스님의 ‘지혜를 밝히는 법회-기획부터 시연까지’를 통해 소그룹으로 전법현장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의 갈증 해소 시켰다. 또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혜자 스님의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강연이 진행됐다.



8일에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의 ‘마음불사, 도량불사’ 강연과 함께 승려연수교육은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 가을 ‘신메뉴’

뿌리채소·열매·버섯 주재료로
“더위로 지친 몸 기력 회복”

조계종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9월 11일부터 뿌리채소와 열매를 주재료로 사용한 가을 신메뉴를 선보였다.〈사진〉

올해 가을 메뉴는 더운 여름을 이겨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 뿌리채소와 열매, 각종 버섯으로 만든 요리를 준비했다.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법식(法食) 총 5가지 코스메뉴를 선보이며, 코스별로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땅의 기운이 가득 담긴 ‘우엉잡채’ ‘가을채소콩가루찜’ ‘인삼 튀김’ 등 뿌리채소 음식과 가을 대표 열매 밤을 활용한 ‘밤죽’ ‘은행경단잣즙’이 대표적이다. 또 버섯이 들어간 요리로는 ‘표고구이무침’ ‘능이버섯전’ ‘자연산송이구이’ 등이 있다. 후식으로는 환절기에 좋은 ‘도라지정과’와 계피나무 가지로 만든 ‘계지차’가 나온다.

김내영 기자